

| | |
|---------|---|
| 지역분류 | 미주 / 미국 |
| 보도일/기관명 | 2017. 2. 8.(수)/ FierceWireless |
| 제 목 | AT&T, 3.7-4.2GHz 및 높은 대역에서 5G 테스트를 위해 FCC에 실험면허 요청 |
| 출처(URL) | http://www.fiercewireless.com/tech/at-t-wants-to-conduct-tests-at-3-7-4-2-ghz-and-higher-bands |

【 개 요 】

- AT&T는 5G 지원을 위한 밀리미터파 대역과 3.4-4.2GHz 대역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및 방사측정을 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실험 면허 승인을 FCC에 요청함
- 경쟁사 버라이즌은 5G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고 약 10개 시장에서 조기 상용화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에 AT&T는 표준을 포기하지 않고 3GPP 표준 개발에 착수하고 있음

【 주요내용 】

- AT&T는 테스트가 5G 표준 활동에서 논의중인 5G 시스템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, 이는 커버리지, 용량, 레이턴시 등 주요 성과지표임
- AT&T의 응용목록에는 3.7-4.2GHz 대역 뿐만 아니라 27.5-28.35GHz, 37-38.6GHz, 64-71GHz 및 71-76GHz 대역을 포함하고 있음
- 이중 3.7-4.2GHz 대역은 3.5GHz 대역과 3.55-4.2GHz 대역과 방사특성이 유사한 이유로 특별히 관심이 있는 대역으로, 다른 지역에서 5G로 고려되고 있는 3.5GHz 대역과 3.7-4.2GHz 대역을 합칠 수 있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기회로 증가할 수 있음
- AT&T는 Texas의 Austin에 있는 고정 실외 기지국과 기지국에서 3km 내에 위치한 실내 주거지, 비즈니스 및 테스트 차량의 이용자 단말(UE)간 통신을 포함한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음
- 5G 전파신호는 가시거리, 나무,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RF 방사환경에서 측정, 분석될 것임
- Austin은 5G 개발의 대중적인 장소로, 지난 해 Indigo 네트워크 발표 중 일부에서 AT&T는 Austin에서 첫 “5G 진화” 시장이 개시될 수 있고 Austin은 DirecTV 시연 뿐만 아니라 인텔의 기업집중된 5G 시연의 장소였음
- AT&T는 또한 이번 봄에 Austin에서 2개의 5G 테스트 베드를 건설 중으로, 테스트 베드는 5G 전용의 실내외 테스트 장소를 포함하고, 5G 표준 개발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유연한 기반이 특징임
- AT&T는 5G 구현의 시기를 당기기 위해 2018년 6월 대신에 2017년 12월에 조기 5G 표준을 산업계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이나, 버라이즌은 3GPP에서 이러한 노력에 반대하고 있음

↑ 목차로 이동